

#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 급증 ‘대유행 조짐’

10월 중순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전년동기비 3.5배 늘어  
‘환자 비율’ 높고 유행시기도 빨라...예방접종 등 건강 관리 필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유행했던 2024~2025년 겨울을 넘는 수준으로 대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여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가리킨다.

올해 43주차 의사환자 비율은 지난해 43주차(3.9명)에 비해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31.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1~6세(25.8명), 0세(16.4명), 13~18세(15.8명) 등 전반적으로 소아·청소년 비율이 높았

다. 19~49세는 11.8명 수준이었다.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한 비율도 11.6%로, 지난해(7.3%)보다 4.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도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를 표본감시한 결과 43주차에 98명이 입원했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13명)의 7.5배 수준이다. 또 입원 환자 수도 40주 33명, 41주 45명, 42주 54명 등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 10년간의 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만큼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4~2025년 겨울에는 2025년 1주차 기준 의사환자 비율이 1000명당 99.8명을 기록,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한 환자수가 많다는 점, 이른 시기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서 대유행 가능성이 높

다고 점쳐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라며, 회사 등에서는 아픈면 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기온은 평년(최저 3~11도, 최고 17~19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보이고, 5일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9~21도를 보이겠다. 또 4~5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당부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교적 맑은 날씨에 기온이 오르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 한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양과동 SRF 재가동...악취 줄어든다

6일부터 하루 14시간...활성탄 흡착탑 성능 개선 등 설비 보완

광주 양과동 자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광주일보 8월 7일 6면)이 악취저감시설 설비 보완 후 재가동을 위한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포스코이앤씨(SRF 운영사)는 3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SRF의 폐기물 반입을 재개하고 6일부터 시설을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4시간으로 계획됐다.

새로 설치한 장비의 안정화를 위해 3일간은 300t을 반입하고 추후 가동 상황에 따라 반입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잔여 폐기물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시설 가동을 중단한 지난 8~9월 사이 시설 내 악취저감장치인 활성탄 흡착탑 성능을 개선하고 에어커튼 설치, 침출수 배출 펌프 추가, 압축공기실 등 밀폐 보수, 약액세정탑 내부 충전재(데미스타·필링) 전면 교체, 실내외 대청소, 집진기 여과포 교체 등 조치를 시행했다.

또 이달 중으로 반입폐기물·고형연료 저장조의 누출부와 분무설비를 보수를 완료하고, 오는 12월에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통해 추가적인 악취저거설비 개선사항도 도출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의 악취저감방식을 기존 약액 세정 방식에서 오는 2026년 6월까지 다시 소각 탈취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광주시 남구는 이날 오전부터 시설 일대에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들을 투입해 악취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남구는 시설이 본격적으로 재가동한 이후에 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즉각 시료를 채취해 악취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정탑을 거쳐 1차 흡착탑으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2차·3차 흡착탑을 추가해 총 3기로 확충했다.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해 악취 제거 성능을 높였다”며 “또 4기의 다른 악취방지 설비도 내부 부품을 모두 새로 교체했다. 껍데기만 두고 안은 싹 다 새로 갈았다.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퇴근 후 저녁 시간대를 피해서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동의 효천지구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저감조치가 실효성이 있었을지 지속 확인하겠다”면서 “SRF시설 외에 광역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목포에 개소

넥슨재단이 50억원 건립 기금을 기부 약정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전남권 최초 공공어린이 의료시설로 목포 텃골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개 병상과 재활치료실, 104종 170대 최신

재활 장비를 구비해 장애 아동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관계자는 “센터 개원을 계기로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도, 유기농 생태마을 2곳 신규 지정

영암 시종면 송산 마을·영광 묘량면 운암 마을

영암 시종면 송산 마을과 영광 묘량면 운암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려면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으로 유기농 인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송산(영암)마을과 운암(영광)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했다.

이들 마을은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과 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마을당 최대 4000만원)로 주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 생태마을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로 전남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73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리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 320여 개의 학교에서 5만4000여 명의 학생들의 참가한 항일 시위운동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추진

100주년 맞는 2029년 목표

전남대학교가 국내외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전남대에 따르면 ‘광주학생독립운동 UNESCO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책임교수 김

재기·정치외교학과)은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11월 3일)을 계기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인 2029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교육부와 광주시 지원을

받아 전남대학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김재기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5·18기록물과 함께 광주의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